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요코하마시 개항 기념 회관

요코하마시 개항 기념 회관의 개요

붉은 벽돌로 된 시계탑이 특징인 이 건물은, 메이지 42년(1909년) 요코하마 개항 50주년을 기념하여 설계 공모를 통해 건설되었으며, 다이쇼 6년(1917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이쇼 12년(1923년)의 관동 대지진 때, 외벽만 남고 지붕과 내부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후 쇼와 2년(1927년)에 재건되었지만, 동으로 된 돔의 건축은 생략되었고, 내부 장식도 다소 간소화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해를 면했지만, 종전 후 쇼와 33년(1958년) 6월까지 미군의 점령 하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노후화로 인해 보존과 철거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기도 있었으나, 쇼와 53년(1978년)에는 수리 작업이 이루어졌고, 헤이세이 원년(1989년)에는 돔이 복원되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다이쇼

외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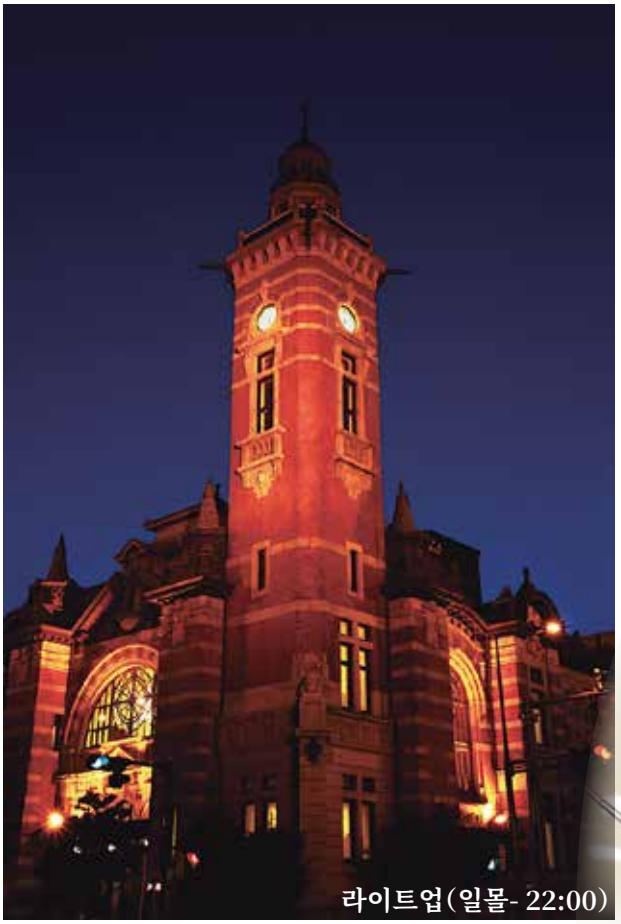
1909	요코하마 개항 50주년을 기념하여 건설 결정
1914	착공
1917	완공 및 개관
1923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돔과 내부가 소실
1927	재건공사, 돔은 생략하고 내부를 전면 개조
1945	미군에 의해 점령
1958	점령 해제
1959	중구 공회당으로 새롭게 개관
1978	개수 공사
1989	시정 100 주년 및 개항 130 주년을 기념하여 돔 복원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
1999 ～ 2000	보수 공사
2009	개항 150 주년을 기념하여 2 층 큰 홀의 스테인드글라스 복원
2021 ～ 2024	보존 개수 공사 외장 및 내장 복원

강당 (481 명 수용 가능)

관내에는 우노사와 조합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소에서 제작한 개항 당시를 그린 스테인드글라스(관동 대지진 후 복원됨)와 와다 에이사쿠 화백의 유화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요코하마 시정을 맡았던 요코하마 마치카이쇼의 터, 요코하마 상공회의소의 발상지, 메이지 시대의 미술가 오카쿠라 덴신이 태어난 곳으로, 각각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2 층 대홀 스테인드글라스(오월동주/봉황/하코네고에)

개항 기념회관의 시계탑은 '잭'이라고 불리며, 가나가와 현청 본관 - '킹', 요코하마 세관 - '퀸'과 함께 요코하마 3 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이트업(일몰- 22:00)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요코하마시 개항 기념 회관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1-6 전화: 045-201-0708
관람 무료
개관 시간 09:00~22:00 (관람 시간 10:00~16:00)
휴관일: 매월 두 번째 수요일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일반 공개: 원칙적으로 매월 15 일 10:00~16:00
*평소에는 사용할 수 없는 1 호 강당 회의실을 공개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s://www.kaikokinenkaikan.com/

【액세스】

●JR 게이힌 토호쿠선 • 네기시선
"칸나이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10 분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
"칸나이역" 1 번 출구에서 도보 10 분
●미나토미라이 선
"니혼오도리역" 1 번 출구에서 도보 1 분